# 주변국가를 통해 본 고려시대 전·중기 관복에 관한 연구

이 승 해*(이화여자대학교 의류직물학과)
홍 나 영 (이화여자대학교 의류직물학과 교수)

본 논문은 나라별 복식 풍속과 품목별로 살펴본 관복을 통하여 고려 전·중기 관복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하였다.

고려(高麗)의 비교 대상은 당(唐)·요(遼)·송(宋)·금(金)이고, 비교 품목은 5가지로 검(劍), 장문(章紋), 면판(冕版), 천자(天子) 상·조복의 색(色), 신하(臣下) 상·공복의 색과 어대(魚袋)이다. 여기서 상복(常服)은 제복·조복·공복을 착용한 경우를 제외한 나머지 경우에 착용한 의복을 칭한다. 즉, 상복(常服)은 연회복[讌服]을 포함하고, 나라에 따라서는 공복과 동일한 개념으로 사용되었다. 다만 당 천자의 상복은 제복과 조복을 착용한 경우를 제외한 나머지 경우를 모두 포함하고, 고려 중기의 경우에는 공복의 개념이 포함되지 않는다. 상복은 예복으로, 평상복[便服]과는 구분된다.

나라별 복식 풍속과, 품목을 통해 살펴본 관복의 특성은 다음과 같다.

요(遼)의 독자적인 문화는 다음 세 항목에서 찾아볼 수 있다. 첫째는 국복(國服)의 존재이다. 요는 관복을 국복과 한복(漢服)으로 구분하여 거란인[契丹人]은 국복을, 한인(漢人)은 한복을 착용하였다. 둘째는 천자 제복 중 국복의 일습(一襲)으로 사용된 도(刀)이다. 당·송·금과 요(遼)의 한복에서는 검(劍)을 사용하였다. 셋째는 금(金) 초기 70여년까지 사용되었던 거란자[契丹字]이다. 이는 요(遼)가 자국(自國)의 문화를 전달할 수 있는 도구를 가졌을 뿐만 아니라 그 문화가 주변 국가에 영향을 미칠 정도였다는 것을 말해준다.

금(金) 역시 요(遼)와 마찬가지로 나름의 자국(自國) 문화를 향유하고 있었다. 이러한 사실은 거란사[契丹絲]와 여진자(女眞字)의 존재, 조복(朝服)의 제작 등을 통하여 살펴볼 수 있다. 금(金)은 주변 국가와의 교류도 활발하여 고려와 여러 가지 물건을 거래하였고, 송과는 서로의 복식을 착용하는 것을 금지시킨 사례가 발견된다. 금의 사회는 신분과 더불어 재산도 생활의 범위를 결정하는 중요한 조건이었다. 이는 사용 가능한 의복의 소재가 재산의 여부에 따라 구분되는 것을 통하여 짐작할 수 있다.

고려(高麗)는 그 모습이 당·송과 비슷할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그러나 『상정고금례』의 내용이 고려조 당시 시행되었다는 가능성이 희박하고, 의복의 제도는 고유의 풍속을 따랐다는 기사를 통해 생각해보면 그 구체적인 모습에서 차이를 보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고려사절요』의 성종(成宗)조에는 고려 사회에서 재산의 많고 적음에 따라 의복의 소재를 달리 사용한 기록이 있다. 이러한 사실은 금과 유사하며, 당·송과는 구분되는 모습이다.

검(劍)은 고려의 주변국에서 제복과 조복의 일습으로 사용되었다. 고려에서 검을 패용한 기록은 없지만 사여받은 기록이 있기 때문에 고려 역시 검을 패용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고려에서 사용된 검의 장식은 옥(玉)과 금(金)으로 추정되고, 사용 계층은 왕(王)와 품계(品階)가 높은 신하로 한정되었을 것이다.

12장문(章紋) 중 종이(宗彝)는 제기(祭器)에 호랑이[虎]와 원숭이[蜼]를 그려 넣은 문양이다. 송과 금은 종이 대신 호유(虎蜼)를 사용하여 상호 교류를 알려 준다. 한편, 송의 기록을 통하여 오대(五代)의 제도가 당(唐)의 것과 일치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광종대(光宗代) 후주(後周)를 통해 오대의 관복 제도를 받아들인 고려 전기의 모습은 당의 것과 차이가 있었을 것이다.

면판(冕版)은 송·금·고려가 같은 크기의 것을 사용하였다. 영향관계의 시작이 어느 나라인지 확신할 수 없지만 서로간 영향하에 있었음은 알 수 있다.

상복(常服)과 조복(朝服)은 당·요·송의 제도와 금·고려의 제도가 구분된다. 즉, 전자(前者)는 황색

포(黃色袍)를 상복으로, 후자(後者)는 조복으로 착용하였는데, 그 색은 대략 적황색(赤黃色)이었다. 그 중에서 송의 상복과 금·고려의 조복은 그 색명(色名)까지 '자황(赭黃)'으로 일치한다. 이는 세 나라의 교류를 보여주는 근거가 되며 특히 금·고려의 제도적 유사성은 주목할만하다.

요(遼)는 자색(紫色)·비색(緋色)·녹색(綠色)의 포(袍)와 어대(魚袋)를 상복(常服)으로 착용하였다. 이러한 복장은 금·고려의 공복(公服)과 일치하는 것이다. 고려의 경우 비교 기준이 되는 품계의 구분 범위에서 약간 차이를 보이지만 전체적인 경향은 일치하고 있다. 이 결과 역시 금·고려 관복 제도의 유사성을 보여주는 단서라고 생각된다.

위의 사실을 종합해 보면 고려(高麗)와 금(金)의 복식 풍속과 관복제도가 가장 일치함을 알 수 있고, 일부 제도상 송(宋)과도 유사한 점이 발견된다.

이상에서 본 논문은 고려의 복식을 살펴봄에 있어 중요하게 다루어지지 않았던 요(遼)와 금(金)의 독자적 문화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또 각 나라의 관복제도를 통하여 고려와 주변국과의 관계를 살펴 고려 전·중기 관복을 보다 구체적으로 형상화하고자 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